

염티 염성리 염티국민학교 뒤에 진훈탑이 서 있다.

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뜻하지 아니한 국토양단과 민족 분열로 국가의 혼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때 이 고장의 임 권재, 홍 관표 이 두분은 남달리 피끓는 애국심에 자유애호와 민족수호의 굳은 신념을 지니고 건국대열에 앞장서서 애국운동을 벌려 민족회와 청년단을 이끌어 온갖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동지들과 협심하여 공산도배의 허다한 흉악을 억제하고 향토의 안정과 질서를 수호하며 민족 발전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고 한 민족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다 분하게도 1950년 6월 25일 적구의 불법남침으로 짓밟힌 이 고장을 끝까지 사수하여 통일을 꾀하다가 뜻을 못다 이루고 그해 8월 어느날 납치를 당하여 유해의 종적조차 알길 없는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

오직 조국 통일을 위한 반공전선에서 숭고한 반공정신으로 고귀한 생애를 조국에 바친 거룩한 공을 높이 찬양하여 1963년 10월 11일 혁명정부 내각 수반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진훈탑에 그 정신을 새겨 길이 전하고 있다.

두 분의 산하에서 활약하던 동지중에 전 학조, 허 웅수, 임 집토, 박 동구, 윤 창 등 제 인사도 황포한 마수의 흉침에 희생되었다.

아-. 여기 흐르듯 고인 그들의 피와 땀을 이 고장 강산과 더불어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니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바친 반공민주 정신은 이 탑에 고이 서리어 이 겨레의 앞길을 밝혀 비치리로다.

- 아산군 염티면 염성리 반공투사 진훈탑 -